

## 옛 상급 무사 주택지

아부 강과 일본해가 만나는 저지대에는 조슈번의 상급 무사들이 거주했습니다. 이 지역은 에도 시대(1603~1867) 건축물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습니다.

시라카베(새하얀 회벽)와 좁은 길 등 역사적인 유산들은 자연재해나 도시 개발로 인한 피해 없이, 조슈번의 번주인 모리 가문이 다스리던 당시의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1600 년)에서 도쿠가와군에 패배한 모리 가문은 영지의 절반 이상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 에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일본해 방면의 자그마한 어촌인 하기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기 마을은 2 개의 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하기 성은 하시모토 강 하구 부근의 시즈키야마 산 기슭에 바다를 등지고 축성되었고, 성하 도시는 모래땅의 삼각주 위에 정비되었습니다. 마을 조성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신들이 거주하는 무가 저택은 하기 성의 첫 방위 라인으로 성 안쪽 해자와 바깥쪽 해자 사이에 배치했습니다. 육지를 통해 공격해 오는 적들은 강을 건너고 여러 해자를 넘어 미로처럼 복잡한 거리에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무가 저택이 성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된 이유로 당시 사회 계층의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라카베가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일본의 과거를 상상해보면서 산책할 수 있습니다. 옛 무사 주택지는 1976 년에 일본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 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상인 주택지와 함께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에 등재된 하기 조카마치(성하도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